

#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

이돈실(고신대학교 박사과정)(대3-1)

##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공교육의 교육과정 변천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밝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비평을 하고, 국공립학교와 기독교계 사립학교 및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기독교사로서 공교육 안에서와 대안교육을 통하여 교육 목적 및 방향을 바로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의 중립성이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된 배경으로 서양철학의 두드러진 종교적 근본동인에 기인한 이원론적 사고가 현대 인본주의의 자연과 자유의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귀착된 것을 알 수 있다. 신을 벗어난 인간의 이성 과 과학은 학문의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육적으로 종교의 중립을 요구하며 국공립 학교에서 건학이념에 따른 특정 종교에 관한 교육을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는 무교와 불교, 유교(도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과,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대별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 되는 후기 한국사회의 세계관, 그리고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와 교육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부터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변천과정에 나타나는 교육이념과 개정중점, 기본방향, 교육목적, 각 급 학교 교육목표 및 추구하는 인간상 등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된 세계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저변에 깔려 있고,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인 민주주의 세계관 주도하에 초기에는 민족주의가 주축을 이루다가 점차 자본주의로 옮겨 갔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로 후기 한국사회의 세계관인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독교 세계관도 민주주의와 함께 한국교육과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계관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세계관, 교육과정, 교육의 비중립성

## I. 서론

교육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져 왔으며, 시대적 가치는 교육의 목적을 구체화시킨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그 당시 사회의 지배적 세계관(이데올로기)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교육은 무교, 불교, 유교(도교) 등 종교에 바탕을 둔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한국에 유입된 서구의 다양한 근대 및 현대의 세계관<sup>1)</sup>들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관들은 외부적으로 한국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으나, 내부적으로 급속한 발전의 과정 속에서 정체성이 바로서지 못하고 외부와 내부의 세계관들에 휩쓸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특히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한국 교육과정도 종교의 중립성을 표방하게 됨으로써 종교적 가치관이 배제되어 교육의 방향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오늘날 공립학교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 교육기관에서도 현대 서구의 세속적 세계관의 영향과 이원론적 신앙 형태로 인하여 세계관이 혼합되고 혼미해지면서 가치관, 세계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인본주의의 진보와 함께 기독교적 진리와 기독교 세계관은 학문의 영역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성경과 하나님은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었다.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 진리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아이러니이며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근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를 시작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적 교육과정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흘러왔다. 개화기와 미군정기를 통하여 미국 교육과정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단일 민족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이념이 강한 교육과정을 형성 하였다. 한국 사회가 국가적으로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정신을 교육의 기본정신과 현대 한국사회 형성에 기여한 기초이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나<sup>2)</sup>, 현실에 있어서는 기복신앙에 바탕을 둔 한국의 전통적인 무(巫), 불(佛), 유(儒)의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론과 실체가 괴리된 교육과정이 고착되었다.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교육과정과 세계관의 갈등으로 공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정과 교회와 기독교학교 교육 역시 황폐화되고 있으며,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교육에 대한 체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왜곡된 진리와 시행착오가 많으며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세계관,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립학교 교육과정 변천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육계에 흐르고 있는 중심 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밝히며,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비평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비성경적인 부분과 왜곡된 방향을 바

1) 자연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구성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다.

2) 최장집(1998)은 민족독립국가 형성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민족주의, 자본주의 산업화, 민주주의 발전을 근대와 현대한국사회 형성에 기여한 기초이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로잡아 국공립학교와 기독교계 사립학교 및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 및 방향성을 정립하며, 기독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 제시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목적을 정립하고 교육내용 선정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높이고자 한다. 나아가 기독교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변화를 예측하여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교육과정의 비중립성에 대한 세계관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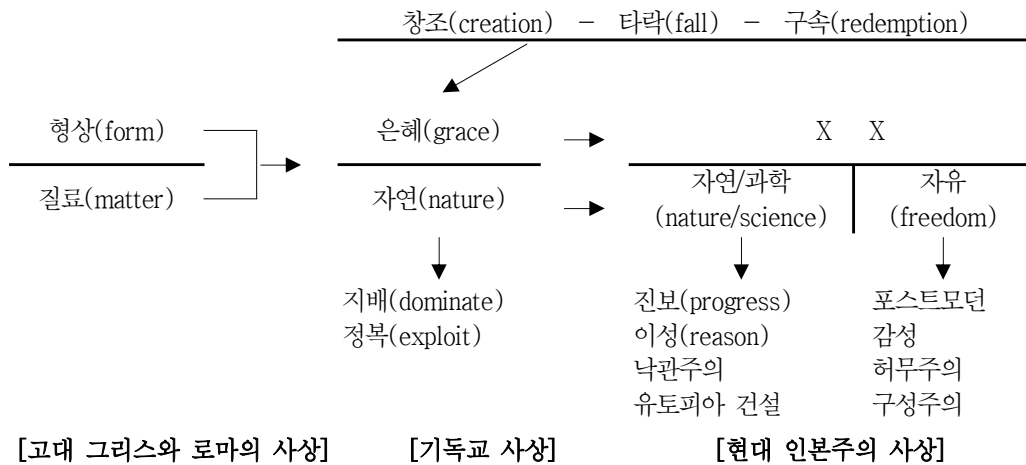
근대적인 시대정신에 편승하여 교육의 중립성이 교육기본법<sup>3)</sup>으로 제정됨으로써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하지 못함으로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급격하게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가치중립적이지 아니라 가치와 진리를 담고 있으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 교육과정이 형성되고 발전되기까지의 철학적 배경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육의 중립성이 한국의 교육과정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한국 공교육과 기독교교육의 현실을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1. 서양철학의 두드러진 종교적 근본동인

교육의 가치중립성이 교육과정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서양철학의 변천과정과 무관치 않다. 흔히 서양철학은 종교와의 갈등에서 출발했다고 하며, 서양의 역사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반동과 동화 및 대화의 역사로 보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기독교철학자인 도예베르트(H. Dooyeweerd)는 서양철학과 문화의 발달은 몇 가지의 기본적인 종교적 동인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법령이 지배하는 통일체로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철학체계를 발전시켰다. 그가 주장한 서양철학의 두드러진 종교적 근본동인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 기독교 사상, 그리고 현대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러한 근본동인은 특정시대의 문화, 학문, 사회구조에 지울 수 없는 특징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을 지배하고 인도하여 누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성수(1997, 67)가 정리한 종교적 근본동인에 관한 도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

3) 교육기본법 제1장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 1] 서양철학의 두드러진 종교적 근본동인(추진력)

## 2. 현대 인본주의적 사고의 발전과정과 진화론의 영향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신성을 우위에 둔 이원론적 사고의 영향으로 움츠려 있던 인간의 자율성이 기지개를 켜면서 서서히 세상의 관심은 인간의 이성에 쏠리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 인문주의자에 의하여 시작된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종교개혁과 과학의 발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켰고 신은 구경꾼에서 급기야는 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 신의 자리에 인간을 앉힌 배경에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이원론과 함께 이신론(理神論, Deism)을 들 수 있다. 근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 이성의 절대적 기준에 맞추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구실로 신을 서서히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급기야는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버린바 되었다.

이성적 사고와 과학의 발달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하였으며, 그 절정에 다윈의 진화론이 있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하여 신 중심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까지 도발하였다. 다윈의 사상은 거의 종교적 신념처럼 각인이 되었고, 과학의 미명하에 진화론은 쓰나미처럼 모든 영역을 점령하며 신의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였다. 급기야는 공교육의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을 표방하며 신은 배제되고 진화론은 과학으로 치장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증거가 없는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교육되어온 이유는 지난 500여 년간에 걸쳐 형성된 인본주의 사상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으로 교육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진화론은 이미 증명된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현대 인본주의의 또 다른 얼굴로 이성의 시대를 지나 감성으로 무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보편적, 객관적 진리란 없으며, 진리는 사회적, 문화적 힘에 의하여 결정되고, 의미와 가치의 기준이 될 중심이란 없다는 것이다. 신 사사시대가 도래하여 진리(왕)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중하고, 2000년 전 예수를 죽인 것처럼, 공적인 영역과 학교에서 신은 또다시 죽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추방되기에 이르렀다.

### 3. 기독교계 학교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현실과 대응

유럽에서 발생하고 성장한 서양철학과 문명의 정거장은 미국이며, 한국의 정치와 교육 등 모든 사상은 미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여과 없이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 현대사회는 서구와 미국이 겪었던 격정의 세월과 치열한 영적전투를 생략한 채 세속적인 세계관들과 교육이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아류로서의 교육을 형성하게 되었다. 근대화 초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한국 근대교육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방이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정치와 교육의 모델로서 미국의 문화와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미국의 학제를 따르고 교육과정을 모방하여 더욱 미국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서구에서 시작된 교육의 가치중립적인 사고가 공교육,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교계 사립학교에까지 영향을 주어, 특정 종교교육을 교육법으로 금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간섭도 함께 받게 되었고, 급기야는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중립을 취할 것을 강요받았다. 건학이념은 국가의 교육이념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물(돈)신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현실에 순응하며 국가 이념의 전도사로서 활동하는 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순수한 신앙을 표방한 대안학교 운동이 활발히 시작되고 있지만, 열악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 한국 근대화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은 교육의 종교적 중립을 표방한 정책으로 인하여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할 위기에 놓였다.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반역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오히려 하나님을 이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세상(유토피아)에서 쫓아내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기독교학교마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몰래 숨겨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 Ⅲ. 한국 교육과정의 역사적 발전과 특성

한국 교육과정의 역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내재적인 계기를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종교적 세계관 속에 반영된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의 서구적인 세계관들로 인한 한국교육의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1. 한국의 세계관과 교육

단일민족을 표방하는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특정한 종교도 사회적인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유동식은 한국인의 혼합된 종교적 사상을 “비빔밥 철학<sup>4)</sup>”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 사상의 밑바닥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인 무교가 있었고, 그 위에 일천 여년에 걸친 불교 사상이 얹혀 있으며, 또 그 위에는 오백 년의 유교 사상이 얹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와 서구의 사상들이 표면을 덮고 있으며, 동서양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마저 겹쳐져 있어서 한국은 동서고금의 모든 지혜가 갈무리된 곡간과도 같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국 사회는 불교 신자이면서도 민간 신앙을 수용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유교적인 윤리 규범에 거부감이 별로 없이 여러 종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적이고 동양적 토양에서 생성되지 않고 서구의 사상에서 이식된 현대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관도 한국 전통적인 세계관과 혼합되며 한국적인 현대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짧은 역사와 이념의 벽 앞에서 분열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정치로 출발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경제의 최전선에서 선방하고 있다. 구한말의 뒤늦은 자본주의의 유입과 수용이 결국은 서구 자본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속국이 되는 정당성을 제공하였듯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지배와 세력 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교육과 학문 영역에 있어서도 이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성주의적 교육철학에 의하여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모더니즘의 자율과 이성에 바탕을 둔 대서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역화에서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추구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인간을 추구하며 교육을 국가경쟁의 최전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 2. 한국 교육과정의 역사와 특성

한국의 교육과정은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한 ‘교수요목기’를 시작으로 지금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크게 7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격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변화와 맞물린 교육과정의 변천은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만 한국의 눈부신 발전의 밑바탕에는 한국인의 교육열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하여 교육은 성장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한국적 교육과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교육과정은 정치적 변혁과 맞물려 변천해 왔으며,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을 국가가 지니고 있다. 비록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어느 정도 위임을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국가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정치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여왔다. 그러나 문서상 공식적 교육과정의 개정에만 초점을 두으로써 교육현장의 변화와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지나친 정치 체제의 영향으로

4) 유동식, “비빔밥의 철학과 한국사상”, 현대종교 9월, pp44-53(이훈구, 1992, 162에서 재인용)

교육과정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표류하다시피 흘러왔다.

#### IV. 한국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관 분석과 평가

한국 교육과정에는 어떠한 세계관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들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비평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공교육과 기독교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방향 제시와 아울러 기독교적 교육과정 이론 구성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 분석

한국의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세계관을 나타내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계관 관련 문헌을 통해 각 세계관의 중심사상과 관련어구 및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분류하고 나열하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세계관별로 2권 이상의 참고 문헌을 통하여 세계관을 설명하는 말이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사상 등 관련 단어들을 나열한 후 중복되는 문구나 단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세계관을 정리하였다.

<표 1> 한국의 세계관에 대한 중심사상과 단어 분류

세계관	중심사상	관련어구나 단어
무교	기복신앙	현세적, 가시적, 개인적, 운명론, 의타성, 실용주의, 범신론, 조화, 균형, 전통, ...
불교	윤회사상	사범인, 사제, 팔정도, 직관, 실천수행, 이상실현, 무소유, 인과응보, 무, 공(空), ...
유교(도교)	충효예	오륜오상, 위계질서, 수기치인, 천인합일, 현세에 관심, 이(理), 기(氣), 수양, 복,...
민족주의	보수	개인, 시민, 평화통일, 토착화, 자주국방, 조국근대화, 세계화, 부국강병, 전통, ...
	진보	민중, 종족, 친 민족적, 반미, 순혈주의, 민족해방과 교류, 북한 원조, 주체, ...
민주주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의무, 정의, 개방화, 세계화, 다양화, 개성, 자치, 참여, 토론, 자율,...
	사회	개혁, 민주화, 민중, 평등, 평준화, 진보, 공익, 복지, 인민, 인권, 차별철폐, 우리,...
자본주의	자유경제	자율, 개방, 융통성, 시장, 민영화, 성장, 실용주의, 가치, 발전, 효율성, 유용성, ...
	사회경제	규제, 조정, 복지 증진, 소비, 공영화, 공교육, 평준화, 무상급식, 나눔, 협동, ...
신자유주의	세계화	탈규제, 개방, 민영화, 초국적, 교육의 시장원리, 경쟁, 혁신, 효율성, 수월성, ...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 다원화	탈(脫), 반(反), 부정, 열린, 개방, 통합, 다중 지능, 실용성, 상대주의, 유연성, 통일성의 거부, 수요자 중심, 개인차, 감성, 다수, 가상 세계, 해방, 저항, 혁신, ...
기독교	창조	천지, 자연, 진리, 지혜, 지식, 질서, 구조, 방향, 보존, 통치, 다양성, 전인, 선, ...
	타락	죄, 불순종, 우상, 이기심, 개인주의, 거짓, 정욕, 자량, 왜곡, 사망, 억압, 반란, ...
	구속 완성	대속, 믿음, 소망, 사랑, 회복, 치유, 용서, 평안, 부활, 새로움, 거룩, 교육, 구제, 전도, 봉사, 교제, 은혜, 화평, 화목, 연합, 중생, 분별, 변혁, 소명, 공동체, 성결,...

한국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관을 분석하기 위해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과정기별로 ‘교육과정 총론’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오는 교육이념, 개정중점, 기본방향, 교육목적, 각 급 학교 교육목표 및 추구하는 인간상 등에 나타난 세계관적인 중심사상과 관련어구 및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각각 표(예: <표 2> 교육이념에 나타난 세계관 분석)로 작성하였다.

<표 2> 교육이념에 나타난 세계관 분석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						후기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비고(기타)
	무교	불교	유교(도교)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보수	진보	자유	사회	자유	사회				
홍익인간	1			1			1		1			1	5
국민의 인격을 도야			1	1		1	1					1	5
자주적 생활 능력				1		1		1		1	1	1	6
민주 시민의 자질					1	1	1						3
인간다운 삶 영위	1					1						1	3
민주 국가의 발전				1		1	1			1			4
인류공영의 이상실현		1				1			1			1	4
계	2	1	1	4	1	6	4	1	2	2	1	5	30
백분율(%)	6.7	3.3	3.3	13.3	3.3	20.0	13.3	3.3	6.7	6.7	3.3	16.7	100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과 한국의 세계관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기별 세계관을 포함하는 중심 사상과 단어들을 ‘한글 2005’ 프로그램에서 찾기(편집-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한국의 세계관 분류표에서 일치되는 단어 위주로 체크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세계관을 포함하는 중심 단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요소는 ‘<표3>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세계관을 반영하는 문구와 단어 분류표’를 작성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표 3>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세계관을 반영하는 문구와 단어 분류표

세계관을 반영하는 문구나 단어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						후기 한국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비고
	무교	불교	유교 (도교)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기독교	
				보수	진보	자유	사회	자유	사회				
가난 극복				○				○					
가정			○									○	
가치관			○	○		○		○				○	
개발								○				○	
개선					○		○		○				
개성						○				○	○	○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인 무교와 불교와 유교가 저변에 흐르고 있으며,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인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해방 이후 한국 교육과정의 주축을 이루는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추구하던 방향이 일체의 잔재를 몰아내고 민족이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추구한 자본주의 사상 또한 한국사회를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사상이 한국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계관의 중심축이며 보수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의 자유주의 사상이 한국 교육과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세계관 분석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						후기 한국인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합계 (횟수) (백분율)
	무교	불교	유교 (도교)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기독교	
				보수	진보	자유	사회	자유	사회				
한국 교육이념 (교육법)	2 6.7	1 3.3	1 3.3	4 13.3	1 3.3	6 20.0	4 13.3	1 3.3	2 6.7	2 6.7	1 3.3	5 16.7	30 100
교수요목기	17 6.1	13 4.7	20 7.2	35 12.6	22 7.9	40 14.4	16 5.8	26 9.4	15 5.4	24 8.6	17 6.1	33 11.9	278 100
교과 과정(1차)기	12 8.9	7 5.2	12 8.9	14 10.4	11 8.1	21 15.6	8 5.9	10 7.4	4 3.0	12 8.9	12 8.9	12 8.9	135 100
2차 교육과정기	10 8.3	5 4.2	12 10.0	12 10.0	4 3.3	22 18.3	3 2.5	14 11.7	2 1.7	10 8.3	14 11.7	12 10.0	120 100
3차 교육과정기	16 9.2	3 1.7	9 5.2	23 13.3	13 7.5	22 12.7	6 3.5	20 11.6	8 4.6	13 7.5	12 6.9	28 16.2	173 100
4차 교육과정기	14 4.8	14 4.8	23 7.9	18 6.2	19 6.5	42 14.4	23 7.9	29 9.9	20 6.8	23 7.9	25 8.6	42 14.4	292 100
5차 교육과정기	8 7.5	6 5.7	8 7.5	8 7.5	6 5.7	14 13.2	6 5.7	12 11.3	6 5.7	7 6.6	10 9.4	15 14.2	106 100
6차 교육과정기	5 3.5	7 4.9	8 5.6	9 6.3	10 7.0	16 11.2	16 11.2	15 10.5	13 9.1	16 11.2	13 9.1	15 10.5	143 100
7차 교육과정기	11 3.9	7 2.5	11 3.9	11 3.9	9 3.2	38 13.4	23 8.1	42 14.8	17 6.0	41 14.4	42 14.8	32 11.3	284 100
2009 개정 교육과정기	6 3.4	10 6.1	8 4.9	7 4.3	4 2.4	22 13.4	12 7.3	16 9.8	11 6.7	20 12.2	29 17.7	19 11.6	164 100
합계	101 62.3	73 43.1	112 64.4	141 87.8	99 54.9	243 146.6	117 71.2	185 99.7	98 55.7	168 92.3	175 96.5	213 125.7	1,725 1,000
백분율(%)	6.23	4.31	6.44	8.78	5.49	14.66	7.12	9.97	5.57	9.23	9.65	12.57	100

후기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으로 세계화와 교육의 시장원리를 도입한 신자유주의와 구성주의와 다원화 및 탈, 반, 부정을 중심사상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이 한국 교육과정 속에 꾸준히 자리 잡고 성장하면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개화기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 제국주의와 그에 영향을 받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나라를 잃은 설움이 있는 우리나라는 다시는 제국주의적인 열강의 침략에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일찍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흐름을 빠르게 수용하고 대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근대화의 모델로서 개화기 교육의 발전을 인도하며 새로운 한국의 문화를 형성한 기독교 세계관은 비록 교육의 종교적 중립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육과정 속에 비중 있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과 공의를 중시하는 인격적인 전인교육과 평화를 사랑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며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아동을 중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 공영의 사상은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한국의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진리의 근본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진화론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한국 교육과정의 세속화를 부추기는 근원적인 문제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표 5>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세계관 상관분석

		무교	불교	유교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보수	진보	자유	사회	자유	사회		
불교	Person상관계수	-.256										
	유의도	.506										
	사례	9										
유교	Person상관계수	.580	.336									
	유의도	.101	.333									
	사례	9	9									
민족주의	보수	Person상관계수	.803**	-.306	.422							
		유의도	.009	.423	.258							
		사례	9	9	9							
	진보	Person상관계수	.406	-.067	.230	.645						
		유의도	.278	.865	.551	.061						
		사례	9	9	9	9						
민주주의	자유	Person상관계수	.486	.081	.787*	.295	-.220					
		유의도	.185	.836	.012	.441	.570					
		사례	9	9	9	9	9					
	사회	Person상관계수	-.827**	.281	-.487	-.672*	.040	-.671*				
		유의도	.006	.463	.183	.048	.919	.048				
		사례	9	9	9	9	9	9				
자본주의	자유	Person상관계수	-.220	-.623	-.491	-.342	-.550	-.148	-.012			
		유의도	.570	.073	.180	.368	.125	.704	.976			
		사례	9	9	9	9	9	9	9			
	사회	Person상관계수	-.807**	.193	-.641	-.562	.047	-.857**	.882**	.088		
		유의도	.009	.619	.063	.115	.904	.003	.002	.882		
		사례	9	9	9	9	9	9	9	9		
신자유주의	Person상관계수	-.727*	-.116	-.668*	-.673*	-.542	-.282	.566	.411	.386		
	유의도	.027	.767	.049	.047	.132	.462	.112	.272	.304		
	사례	9	9	9	9	9	9	9	9	9		
포스트모더니즘	Person상관계수	-.523	.186	-.377	-.754*	-.912**	.045	.183	.348	.093	.719*	
	유의도	.149	.631	.318	.019	.001	.908	.638	.359	.811	.029	
	사례	9	9	9	9	9	9	9	9	9	9	
기독교	Person상관계수	.142	-.358	-.286	.177	.185	-.397	-.194	.243	.218	-.444	-.320
	유의도	.716	.345	.456	.648	.635	.290	.617	.529	.573	.231	.401
	사례	9	9	9	9	9	9	9	9	9	9	9

(\* p < .05, \*\* p < .01)

위의 <표 5>와 같이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세계관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무교는 민족주의 보수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positive relation)을 나타내고,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와는 P<.01 수준, 그리고 신자유주의와는 P<.05 수준에서 부적 상관(negative relation)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무교는 민족주의 보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교는 민주주의 자유와 P<.05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신자유주의와는 P<.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교의 보수적인 사상을 자유 민주주의를 통하여 엿볼 수 있고, 질서 중심의 보수적인 유교사상은 세계화와 경쟁을 앞세우는 신자유

주의와는 대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족주의 보수는 민주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P<.05$  수준에서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민족주의 진보 또한 포스트모더니즘과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민족주의 진보와 보수가 공히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한국 교육과정의 민족주의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개념보다는 민족주의 이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와  $P<.05$  수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와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자유사상과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의 사회사상이 대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이다.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는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서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친밀감을 알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도  $P<.05$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한국 교육과정의 핵심 사상을 이루고 있는 두 사상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불교와 민족주의 진보, 자본주의 자유 및 기독교는 다른 세계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불교의 현실적이고 내세적인 사상이 다른 세계관과 크게 대립하지 않는 초월적인 관계임을 나타내며 불교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세계관을 포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겠다. 민족주의 진보와 자본주의 자유사상 또한 다른 민족주의 보수나 자본주의 사회에 비하여 이념적 성격을 크게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해방 이후 서구의 교육철학과 함께 한국 교육과정의 중심축이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 사상이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이다.

## 2.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비평적 평가

해방 이후 한국 교육과정에는 종교에 바탕을 둔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들어온 현대 인본주의의 다양한 세계관들이 혼합되며 변천되어 왔다. 기독교 세계관도 한국 교육과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계관으로서 줄곧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한국 현대교육의 기초를 닦은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적 중립을 표방한 현대 인본주의의 공격으로 모든 진리의 근본이면서도 진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방향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비평함으로써 바람직한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교육과정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현대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종교적 가치로서의 기독교와 하나님의 창조원리가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있다. 창조된 세상과 인류의 기원,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과학으로 변신한 진화론적인 우주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진보적이고 진화론적 사고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취급하며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라 경쟁체제를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인간의 학습능력에 따른 줄 세우기와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를 더하고 있다.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세력을 획득한 현대 인본주의는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철저하게 성경과 신앙은 배제시켰다. 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세계의 다양한 양상들

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며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인본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한국 교육과정은 창조세계를 통전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특정측면을 절대화하면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며 교육을 왜곡시켰다. 서구의 교육사상에서 유래한 교육과정 이론으로서 한국교육과정의 기초를 형성했던 교과중심, 경험(학생)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의 특정 사상이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형성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듭해 왔다. 파편화되고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교과서가 정전화되고 교육의 장이 가정을 떠나 학교 담장 안으로 축소되었으며, 인본주의가 심화되고 가르침의 권위가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창조세계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교과를 구성하며 삶의 다양한 양상을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 교육과정은 미국과 서구의 세속적 세계관과 교육사조,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천되어 왔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이 주도권을 행사하다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대성에 기인한 교육과정의 세계관은 한국적인 교육철학을 형성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유행과 시대적 흐름을 따라 급변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여 진리를 부정하기에 이른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육과정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들은 이상과 현실이 분리된 이원화된 교육과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교육의 이상에 있어서는 현대 인본주의에 의한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과 후기 한국사회의 세계관이 주도하며 전인교육과 국가발전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기인한 개인적이며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기복사상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며 출세를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정치적 이념대결과 맞물려 보수와 진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교육과정을 분열시켜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둘리며 사상적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상과 현실이 일원화된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넘어 인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교육의 영역에 주권을 부여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따라서 한국 교육과정은 현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세속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구속 받아 회복되어야 한다. 모어(More)는 ‘유토피아’를 통하여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꿈꾸고 소망하였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공동체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추구해야 할 것이다.

### 3.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제안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한국 교육과정의 비평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고려

해야 할 요소와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제안과 함께 기독교적인 교육과정의 이론 구성을 위한 제안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교육이념, 교육철학, 교육목적,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교육평가 등 교육과정 이론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진리에 바로서야 할 것이다. 공교육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기에 결코 포기하거나 왜곡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속적 세계관과의 이념대결에서 주도권을 잡고 영적전투에서 공교육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교수능력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독교사’를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교육과정이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교대, 사대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달아 기독교사로 헌신하게 하는 일과, 동시에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해 기독교 연수과정과 연수원 및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대학원과 연구소들이 세워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맞춤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사를 세우는 일에 총체적인 지원과 공동체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독교사에 의하여 교육과정과 교과가 창조적으로 재구성되고, 기독교적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어 실행되며, 삶의 다양한 양상들을 교과를 통해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기독교사와 기독교학부모들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학교 교육과정이 튼튼한 기초위에 구성되기 위해서는 건학이념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학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교육과정이 인본주의와 세속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서는 기독교학교라 할 수 없다. 최소한 기독교학교라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확고한 신념하에 공동체가 합의한 건학이념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적당한 타협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뒤틀리게 마련이다. 대안학교를 비롯한 기독교학교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모방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상을 앞서 선도하는 창조적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의 정전화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다양한 국면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표면적인 교육과정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며 기독교적 환경구성과 함께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학교 교육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성과 탁월함을 겸비한 교사가 양성되고 교과의 재구성과 함께 성경적인 교재와 프로그램들이 기독교사연합과 교과연구회 등을 통하여 활발히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학부모의 참여와 함께 교회의 협조와 연합, 후원이 기독교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의 신앙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공동체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행하며 공유해야 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후세대 교육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며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 기독교 교육과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창조세계의 다양한 국면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 피조세계를 해방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히,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맡

은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교육과정’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전인교육뿐만 아니라 영적성장을 위한 가정의 교육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며 평가되어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사와 기독교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가 세워져서 현실과 이상이 이원화된 교육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학교 운동은 꼭 학교의 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홈스쿨의 형태를 띠면서 학교와 교회, 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가르침과 기독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체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다각도로 실천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대안이 아닌 기독교적 교육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고 정체성을 정립하며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갖춘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교육목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일과 성경의 벽을 넘어서 주말과, 주중, 방학을 이용한 시간의 편견을 초월하고, 장소는 교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 안으로 들어가 교육의 장을 넓히며,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삶의 다양한 양상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구조를 변혁시키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성경적인 교육과정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 교실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사는 결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교육을 외면할 수 없다. 부모로서 기독교사로서 지상명령과 대계명에 순종하며 교육공동체로 더불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독교 교육과정이다.

## V. 결론

해방 이후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인 무교, 불교, 유교(도교)가 저변에 흐르며 교육과정의 이상을 이원화시키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인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교육과정의 세계관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21C에 접어들면서 후기 한국사회의 세계관인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교육과정을 형성하는 주류로 등장하여 인본주의의 끝없는 행진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서양철학의 두드러진 종교적 근본동인에서 기인한 현대 인본주의는 이성을 넘어서 감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기독교 세계관은 교육의 중립성에 의하여 진리의 영역에서 밀려나고 교육과정이 세속적 세계관에 의하여 점령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안에서 현대 인본주의를 변혁시켜 기독교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를 재구성하고, 기독교사를 세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학교 안에서도 건학이념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영적전투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이 합력하여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가정, 교회, 학교가 연합하는 공동체 교육과정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의 후속적인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총론과 각론을 총괄하며 이론과 실체가 조화를 이루는 폭넓은 세계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개정 교과서별로 나타나는 교과 세계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이 재구성 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과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기독교적인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학생평가와 학교, 교육청 평가, 교사평가에 이르기까지 각종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적인 평가관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를 지향하는 학교와 기독교사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 참고 문헌

- 강용원 외 (2007). 『기독교교육학 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 강희천 (2003).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 )』. 총론, 재량활동.
- 김대현·김석우 (2009).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김성수 (1997). 『종교적 근본 동인』. 고신대학교 논문집 제24호 p.57-69.
- 김수행 외(2003).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영국·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인회 (1978). 『한국교육의 무속사상적 연원』. 한국교육사학 Vol.2. pp.9-24.
- 박상진 (2004).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2007).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5). 『한국교육사』. 서울: 교육과학사.
- 손원영 (2001). 『프락시스와 기독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손인수 (1973). 『한말 근대사학의 민족성신과 교육구국운동』.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논집 6 권. pp.41~55.
- 신기욱 (200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경기: 창비.
- 심성보 (1999). 『교육개혁의 오류와 학교 붕괴의 공동체적 극복』. 전교조 참교육 실천 위원회역음: 학교붕괴. 서울: 푸른나무.
- 안귀덕 외 (2003). 『인본주의 전통과 한국교육의 과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양승훈 (2004).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유동식 (1967).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정미 (2008). 『기독교적 교육과정 개발의 전망과 과제』. 서울: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 이종원 (2000).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경향』.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논총 제16집. pp.199~223.
- 이현규 (2009). 『기독교 교육학』. 서울: 책과공간.
- 이훈구 (1992). 『한국 전통종교와 한국교회』. 서울: 연합.
- 조성국 (2000). 『기독교 인간학: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 부산: 고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 (2003).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학교교육』. 부산: 고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 (2008a). 『세계관과 교육』.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강의자료
- (2008b). “네덜란드계 기독교교육철학에서 일반교육이론을 연구하는 방법”. 『복음과 교육』 제 4집. 서울: 생명의 양식.
- (2009). 『현대 한국민족주의운동에 대응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고신신학회: 고신신학 11. pp.365~398.
- 진영은·조인진·김봉석 (200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탐구』. 서울: 학지사.
- 최장집 (1998).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출판사.
- 최재천 외 (2009). 『21세기 다윈혁명』. 서울: 사이언스북스.
- 최준식 (2007). 『최준식의 한국 종교사 바로보기』. 파주: 한울.
- 함준규 (2004).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Dewey, John.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 New York: Macmillan. 이홍우 역 (2009).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Edlin, R.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Blacktown: NICE.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 (2005).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그리스심.
- Gaebelein, F. E. (1954). The pattern of God's truth: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이창국 역 (1995). 『신본주의 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oudzwaard, Bob. (1981). Idols of our Time. 김재영 역 (2002). 『현대·우상·이데올로기』. 서울: IVP.
- Greene, A. 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lorado Springs: ACSI. 현은자 외 역 (2004).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 Hoffecker, W. A. & Smith, G. S. (1986). Building a christian world view.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김원주 역 (1992). 『기독교 세계관 2』. 서울: 생명의말씀사.
- Joh, S. G. (1997). Human integration as a fundamental anthropological problem in neohumanistic education. Potchefstroom: PU for CHE.
- Kalsbeek, L. (1975).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Edwin Mellen Press. 황영철 역 (1981). 『기독교인의 세계관』. 서울: 성광문화사.
- Middleton, R., & Walsh, B. (1984). The transformings vision: saping a Christian worldview. Downers Grove: IVP. 황영철 역 (2006).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 Overman, C. & Johnson, D. (2003). Making the Connections: how to put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into practice. Puyallup, Washington: The Biblical Worldview Institute.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옮김 (2007). 『진리와 하나된 교육』. 서울: 예영.
- Percey, N. (2005). Total truth. Wheaton: Crossway Books. 홍병룡 역 (2007). 『완전한 진리』. 서울: IVP.
- Sire, J. W. (1976). The universe next door. Downers Grove: IVP. 김현수 역 (2005).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 Van Brummelen, H. (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Second Edition. Colorado Springs, Colorad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이부형 역 (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Wolters, A. M., & Goheen, M. W. (200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2nd edi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양성만 외 역 (2007).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